

기획력 배가 겨냥한 기업경영 이론서들

불황극복 위한 발상의 전환에 초점... 기획의 현실화 문제도 거론

대개의 회사업무는 기획에서 시작해서 기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누가 더 참신하고 경제력 있는 기획을 내느냐에 따라서 인사과과점수가 정해지기도 하고, 기업 또한 기획에 의한 생산과 판매의 과정 위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노린다. 최근 서점에서는 정보서들과 함께 기획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이름으로 정보를 총괄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책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경영에 필요한 기획력을 다룬 책으로는 「2000년대를 향한 기획 포인트」(미타니 코우지 외, 더난) 「기획은 승자의 제일조건」(서림 능력개발자료실 엮음, 서림) 「기획력」(강찬량, 민성사) 「불황을 이겨내는 신기획술」(명진출판사경영 연구팀 엮음, 명진) 등이 있다.

기획의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정리

이 책들은 기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기획이 완성되어 실행되는 마지막 단계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발상을 머리 속에서 지우고 새로운 발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책에서 말하는 기획의 단계를 보면 우선 과제설정을 1차로 꼽고 있다. 즉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한 착안이나 발상을 찾아내는 단계에서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끝으로 발상결과를 어떻게 알기 쉽게 정리하느냐는 문제와 관계자에게 어떻게 알리느냐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승인을 받아내느냐는 문

대개의 회사업무는 기획으로

시작해서 기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점 실용서코너에는

지능개발도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보의 아이디어화를 돕는 책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기획력 배양의 실제적인

훈련을 비롯해서 정보채집과정 등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이들 도서는

독자들에게 대중의 욕구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황을 이겨내는 신기획술」은 기획의 3대 요소로 '창조적 사고, 현실적 사고, 논리적 사고' 등으로 설명하면서 각 요소에 필요한 개인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에서도 이에 따른 개인과 집단성원의 할 일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다룬 책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로저 폰 오익호의 「아이디어 만들기」(자작나무) 「바보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다」(이성과 현실) 「생각공부」(권영범, 유레카) 「현대를 지배하는 아이디어맨」(알렉스 오즈본, 지성문화사) 등이 기획 발상의 충실한 안내서 역할을 해주는 책들이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있고 대중의 욕구 또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서 기업인들은 고정관념을 깨야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력 배양 서적들.

한다고 역설하는 위 책들은 아이디어 창출 과정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 훈련법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수집한 정보를 아이디어화 하는 과정

그러나 이들 책들은 단순한 '머리가 좋아지는 책'류와 같은 성격에 놓여 있지 않다. 다루어지는 내용이 기업의 기획력 배양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실제적인 훈련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채집과정, 수집한 정보를 아이디어화하는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지능개발도서와 다른 점이다.

머리속에서의 기획구상과 함께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메모술 소개서도 있는데, 「정보를 3배로 활용하는 지적 메모술」(마쓰다 다케키), 「비즈니스수첩 120% 활용술」(사이가와 켄이치, 이상 한국생산

성본부) 등은 정보수집과 체계화에 필요한 메모요령을 적절한 예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책. 수첩 선택기준이나 요령부터, 수집 정리 된 정보는 어떻게 메모하는 것이 좋은지와 비즈니스상담에서 메모하는 노하우, 시간관리 등의 올바른 메모습관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5천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11개의 상장회사가 부도를 냈다. 경기침체와 불황은 지난해에 그치지 않고 올해도 여전히 기업인들이나 셀러리맨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기획력으로 나쁜 경제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도서가 다수 출반되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을 듯하다.

—이성수 기자

서울에 남겨둔 꿈

井上角五郎·杉村濤·柵瀬軍之佐 著, 한상일 역·해설, 9,800원

19세기 중엽부터 일기 시작한 서양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日本은 민족적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메이지(明治)유신 체제로 진입, '대륙진출'이라는 國家進路의 이정표를 만드는 한편, 한반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친일과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 책에 수록된 「漢城之殘夢」, 「在韓苦心錄」, 「朝鮮時事」 등 3편의 글은 격동의 19세기 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日本의 浪人, 外交官, 言論人들의 기록으로서 일본 지배계급의 의식과 사상이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林董(하야시 다이스)秘密回顧錄

AM.Pooley엮음, 신복룡·나홍주 역주, 3,800원

이제까지 대한 제국멸망사의 외교적 배경은 1905년의 테프트-桂太郎 密約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비록은 일본의 조선병합의 꿈이 이미 對英외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영·일 동맹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 영·일 동맹의 체결 당사자였던 林董의 말을 통해서 당시 국제 사회에서 조선이 어떻게 요리되었는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甲申日錄

金玉均 著, 趙一文 역주, 3,500원

이 책은 이조말의 풍운아 김옥균이 그가 주동한 '갑신정변'의 거사에 실패하고 망명처인 일본 땅에서 정변의 전후를 회고하면서 당시의 정세와 정변의 실상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종래 「갑신일록」은 몇개의 필사본들이 유포되어 왔었다. 본서는 역자가 일본 東洋文庫本과 李瑄根 박사 소장 사본을 대조하면서 오자 등을 깊이 검토·판별하고 역주한 것이다.

朝鮮策略

黃遵憲 著, 趙一文 역주, 3,000원

이 책은 병자수호조약 이후 김홍집이 修信使로 도임하여 청국의 외교관들과 거론한 한미수교에 관한 기록과 그를 둘러싸고 발생된 朝配의 의견을 모은 「金弘集과 淸外交官과의 筆談」을 비롯하여 일본주재 청국공사 참찬관인 황준현의 「朝鮮策略」 및 조선책략에 반발하여 김홍집 일맥을 탄핵한 「嶺南萬人疏」, 그리고 조선들이 의견을 모아 왕에게 헌책한 「諸大臣獻議」 등 4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경국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도서주은 450-3893 FAX: 457-7202